



기정원, 도로공사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한국도로공사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발전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장현성 기정원 협력사업본부장과 도로공사 이창봉 혁신성장본부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신한카드, 메리츠증권·가이온과 데이터사업 맞손

신한카드는 메리츠증권, 가이온과 공동으로 국내 거시경제와 산업전반에 대한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배준수 메리츠증권 부사장, 안중선 신한카드 부사장, 강현섭 가이온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한국엔컴퍼니

취약층 지원 이웃사랑 성금 사랑의 열매에 11억원 기탁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의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11억원을 기탁했다.

한국엔컴퍼니는 2003년부터 사랑의열매에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 11억원을 포함 누적 약 120여 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서울지역(서울 사랑의열매), 대전지역(대전 사랑의열매), 충남지역(충남 사랑의열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뜻 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에 최원혁 판토스 대표 재선임



최원혁 판토스 대표(사진)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더 이끌게 됐다.

통합물류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인사동 협회 사무실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현 회장인 최원혁 판토스 대표를 제7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타다 라이트 서울 1기 가맹주 모집

타다의 가맹택시 '타다라이트'가 서울지역 개인 택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1기 가맹주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타다는 서울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하고 출고 4년 이내의 배기량 1600cc 이상 중형택시 차량을 소지한 개인 택시 사업자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1기 가맹 사업주들에게는 가맹택시 가입비, 최초 교육비, 자재와 공임비 면제 등 10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검찰개혁만 하다가 날 새겠다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검찰개혁은 현 정권의 지상 최대 과제다. 집권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인 지금도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연스레, 검찰이 마치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 악' 취급을 받고 있다. 검찰도 엄연한 정부 조직인데 말이다.

성과물은 초라하다. 오히려 과거를 되돌아보면, '도대체 검찰개혁이 뭐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나' 싶을 정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5년 사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등관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은 나라를 이천투구판으로 만들어놓고 떠났다. 이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검찰개혁에만 힘을 쏟았으나 결국 상처만 입고 퇴장했다. 오히려 검찰개혁 이슈로 일반 국민 사이를 둘로 쪼개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떠났다. 게다가 그들은 검찰개혁을 '풀지못한한(恨)'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도 SNS에 각종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며 검찰과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 국민은 피곤하기만 하다. 국민의 피로도가 심하게 누적됐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하락이 방증해준다.

예전 군부독재시절 가장 많이 들던 말 가운데 하나가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다. 실제로도, 검찰이란 조직은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부터 권력자를 지키는 시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굴 잡아넣으려고 하면 잡아넣었고, 누굴 봐주려고 하

면 눈감아줬다. 그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보는 집권 여당이 검찰개혁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검찰은 시녀일 뿐, 권력 그 자체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은 권력 자체에 있다는 얘기다. 권력이 부패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언제든 검찰은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써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지금 정권도 검찰개혁을 한 다곤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는 힘을 실어주고 자신들이 불편한 사안에는 힘을 빼려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지금 정권이 왜 그렇게 검찰개혁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나 경찰에 불 일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그저 검찰개혁을 한다니까 그런가보다 싶은 정도다. 검찰개혁이란 원론적인 수준에서 동의할 뿐,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싸우는 꼴을 5년째 보고 싶지 않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가뜰이나 저성장 기조 속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해 민생이 피폐해진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갈수록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5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이런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빈부간 격차는 이전 정부보다 더 커졌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평범한 꿈을 포기한 채 빚을 끌어댕겨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투기 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오로지 검찰개혁만 되면 모든 게 풀리는 것처럼 검찰개혁만 부르짖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정책부장 yhj@metroseoul.co.kr

삼성, '지속가능 발전' 청년리더 4명 추가 선발

'제네레이션17' 프로그램 확대 ECOSOC 청소년 포럼 등 활동

삼성전자가 유엔개발계획과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이끄는 청년 리더를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프로젝트 '제네레이션 17'에 참여할 청년 4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네레이션17은 2030년까지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 UN 75주년을 기념해 젊은 세대들의 동참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리더는 C랩 아웃사이드에도 선정된 바 있는 두브레인 최예진 대표와 브라질 빈민촌 청소년 기본권 신장 활동가 다니엘 칼라코, 레비는 지역사회 활동가 나딘 카울리, 투명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유리 로마쉬코 등이다. 종전



삼성전자 프로젝트 '제네레이션 17'.

에 4명과 함께 총 8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 리더들은 그동안 다양한 유엔 행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50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해왔다. 올해에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청소년 포럼 2021을 시작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청년 리더들에 최신 갤럭시 기기와 기술을 지원하며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갤럭시 사용자들이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플

랫폼 '삼성 글로벌 골즈'로 활동 상황을 지속 공유하게 된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 최승은 전무는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청년 리더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갤럭시가 구축한 에코시스템과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chim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은 "유엔개발계획은 삼성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커뮤니티,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리더들이 회복과 개선의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우수사업장평가 '최우수'

전남 여수시가 주관한 '2020년 여수산업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평가'에서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24일 여수산업 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 공적 심의 위원회는 무사고 사업장의 유지와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시설투자 실적 등을 기준으로 총 4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은 1등 사업장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은 공정안전

관리 및 안전관리시스템(PMS·SMS)의 최첨단화, 가스감지기 및 소화장비 등 시설투자 확대를 인정받았다. 특히 협력업체와 위험작업의 안전관리계획을 합동 점검하면서 화재예방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케미칼 부문은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과학 전문 컨설팅 업체인 '피델리티 솔루션'에서 안전 리더십 컨설팅도 받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경제조사본부장(전무이사) 이경상 △국제본부장(상무이사) 강석구 ◇보임 △총괄전무이사 박종갑 △회원본부장(상무이사) 박동민 △산업조사본부장(상무이사) 박재근 △공공사업본부장(상무이사) 노금기

◆건강대병원 ◇교원 △진료부장 겸 소화기센터장 구훈섭 △교육수련부장 문주익 △기획조정1부실장 황원민 △적정진료관리1부실장 이영진 △흉부외과장 구관우 △신경외과장 이철영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 김승준 △생명사랑위기대응부센터장 류현식 ◇직원 △총무팀장 겸 설비공무팀장 김선겸 △교육혁신팀장 강인구 △관재팀장 김대환 △수련팀장 김정욱 △서비스

SKT

5G·AI 특허 기술 선도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발표

SK텔레콤은 글로벌 특허 솔루션 전문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이하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등재됐다고 24일 밝혔다.

클래리베이트는 다양한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특허 등록 건수·영향력·등록률·글로벌 시장성 등 4가지 지표를 통해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SKT가 클래리베이트의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된 것은 이동통신 및 5G·AI·미디어·보안 등 특허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혁신팀장 이미연 △시설팀장 이의준 △약제팀장 이지영 △외래간호팀장 이귀연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 디지털뉴스부 총괄팀장 박성준

◆조달청 ◇과장급(공모직) △공사관리과장 윤일주

부음

▲전광진(전 전북대 교수)씨 별세, 오수자(전 초등학교 교사)씨 남편상, 전영우(MBC 통합뉴스룸 주간뉴스팀장)·전영은(의상 디자이너)·전영경(미술 작가)씨 부친상=23일 오후 10시11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우원정씨 별세, 우현재(우주씨앤티 대표)씨 부친상=24일 오전 4시 40분,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26일 오전.